

○ 김선규 의원(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6. 3. 9)

경기버스-서울버스·전철 간 환승할인제 지연사유와 대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대책

(질 문)

- 서민의 발인 버스가 경영악화로 노선폐지 및 축소로 이용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
- 경기버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기버스-서울버스·전철 간 환승할인제 지연사유와 대응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(답 변)

-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버스 노선이 폐지·축소 운행되고 있으며,
- 노선을 폐지·축소하는 이유는 유가인상, 인건비 상승 및 승용차 이용증가, 철도망 확충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입니다. 특히 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상태에서, 중복, 굴곡, 장대화 노선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운송비용이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
- 또한 2004년 서울시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경기버스 이용자중 일부가 서울버스로 전환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금은 버스업체 수입금의 약 2% 정도로 분석되고 있으며, 우리 도는 경기버스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와 환승할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지금까지 서울시,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호환정산을 위한 연계정산방안 및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시행기준, 정산규칙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다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도는 작년 6월부터 「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」을 통해 노선·환승체계, 운영·요금체계, 서비스 고급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며,
- 용역의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시내버스 통합교통카드시스템 구축·운영('05. 12),

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 확대시행('05. 6) 중이며, 시외버스 교통카드제('06. 5), 과학적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및 버스타착알림 서비스('06. 4) 등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앞으로 대중교통 종합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